



14년

여성경제인협회 전북 창립 25주년 기념식

# 전주매일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음 5월 29일) 제35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의 큰 꿈 향해 시민들과 동행”

### 민선8기 2년 전주시정

▶ 관련기사 16편

우범기 시장,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 등 제시

민생에서 답을 찾는 확실한 현장 행정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후반기를 남은 2년 동안 왕의공원 프로젝트와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등 '거점별 핵심공간 10대 프로젝트'를 본격화함으로써 전주의 대변혁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미래 100만 광역도시 도약과 강한 경제 구현 등을 기치로 '시민들의 삶을 바꿀 10대 역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시민들이 전주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3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과감히 과거의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전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면서 "민선 8기 후반기 전주시는 '전주의 큰 꿈을 향한 시민과의 동행(同行)'을 슬로건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그간 계획해 온 전주의 큰 꿈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 시장은 각 거점별도 도시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발전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며 더 큰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시민의 삶을 바꿀 10대 역점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에는 △전주 곳곳의 문화유산을 연계하고 재창조하는 '왕의공원 프로젝트'

△전주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 외연 확장을 위한 '4대 관광지(아중호수, 덕진공원, 완산공원, 모악산) 조성' 등이 포함된다.

시는 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전주천·삼천 명품화천 365프로젝트 △산업단지 대개조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영화·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K-한지마을 조성 △드림랜드 현대화 △도도동 미래 도시 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 곳곳에

매력적인 거점 공간들을 조성해서 도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기로 했다. 시는 거점별 핵심 공간 조성과 더불어 시민의 삶을 바꿀 10대 역점전략도 추진한다.

10대 역점전략은 △미래 100만 광역도시 도약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도시 도약 △머무름이 있는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다함께 돌봄 복지안전망 구축 △안전한 스마트도시

실현 △탄소중립 선도 및 친환경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미래 도시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생활 안정 및 취·창업 지원 강화 등이다.

일례로 시는 미래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통합 여건을 조성하고, 대한방직부지 개발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 등 도시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황방산터널 개통 △전주형 간선급행버스(BRT) 기린대로 구간 착공 등을 통해 광역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주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전주 희망드림 안심연장'을 시행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다시서기'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의 기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 민선8기 상반기 2년 동안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서 위상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밑거름을 그리는 데 집중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돌이켜보면 전주는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짐작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으며, 기대보다 도시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했다"면서 "민선8기 후반기에는 전주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그 결실을 시민과 나누며 전주의 100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농원, 밀 정부비축 매입검사 오늘부터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원, 지원장 김민욱)은 2024년산 국산 밀 정부 비축 매입검사를 4일 정읍명품귀리사립농장을 시작으로 8월 23일까지 도내 7개 시군, 34개 생산단지에서 실시한다.

3일 전북농원에 따르면, 매입 물량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사전 약정체결 물량은 총 1만8633(전국 2만3,371의 46.5%)으로, 일반 밀 1만821t, 친환경 밀 42t이다.

정부 매입에 참여하는 물량은 올해 생산한 2024년 국산 밀로, 사전 지정된 새금강, 금강, 백강 품종이 해당한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12일 사이 실시한 사전 품질 조사(품종 순도, 단백질 함량, 회분 검사,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이 대상이다. 현장 품위 검사에 수반 12.5% 이내로 건조하며 대형(1,000kg 단위)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 가격은 사전품질조사 결과에 응적중, 피해입, 이물 등을 반영한 현장 품위검사 결과를 종합해 새금강(제면용)은 최종 1~2등급을, 금강, 백강(제빵용)은 최종 1~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밀 매입 가격이 차등 지급된다.

한편, 전북농원은 공정하고 안전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검사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련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하 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생산 단지를 대상으로 검사 기준, 포장재 규격, 수확 후 밀 품평이독소 저감 방법 등을 사전 지도하는 등 검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교육가족 77% '학생중심 미래교육' 공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 인식 조사' 결과 학부모·교직원 7621명 대상... 학력신장 등 긍정적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는 지난 5월 21~28일 학부모 5,415명과 교직원 2,206명 등 총 7621명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청 교육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학부모와 교직원의 76.6%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의 정책 기조인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3.4%는 '매우 동의한다', 43.2%는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학력신장, 미래교육 환경 구축, 학생 인권과 교원 보호, 학생 해외연수, 전북에듀케이 지급 등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25.4%가 '매우 잘하고 있다', 41.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의 66.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학력신장 등 전북교육 대전환 핵심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7%가 '동의한다'고 했다.

'교원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5.5%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3.1%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69.1%) △작은학교 살리기(75.8%)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77.7%) △전북에듀케이(79.0%) △특수교육 확대(83.4%)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78.2%) △학생 시민의식 향상(75.1%) △수업 혁신(75.7%) △진로·진학교육 활성화(84.3%) △전북형 늘봄학교(88.4%)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등 전북교육 대전환 핵심 정책들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고루 높게 나타났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해 실시했던 다양한 교육정책들에 대해 학부모와 교직원

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중점적으로는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학력신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북에듀케이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식 조사는 서거식 교육감의 취임 2주년을 맞아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교육정책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한숙경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전북교육청이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정책 이슈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과제들"이라며 "전북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교육정책을 마련한다면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달성에 한 발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학생중심 미래교육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우주방문의 해

#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2024. 8/31(토) - 9/8(일)

주최: 무주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주관: 무주군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

## 올해 한육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전북자치도, 한우·육우·한우송아지 등이 지원대상... 내달 9일까지 신청서 제출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

를 보전에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 예정 금액으로는 마리당 한우 송아지 1마리당 10만4,000원, 한우 5만 3,000원, 육우는 1만7,000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